

불교 이래서 좋다



이현철 자영업

어린시절을 회상해 보면 나는 몸이 많이 약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절에 가시면 항상 나의 건강을 빌었다. 나도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절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절을 했던 기억이 있다.

선, 108배, 관음정근 등을 배웠다. 특히 시간만 나면 관세음보살을 호명하는 관음정근을 마치 참선을 하는 사람이 화두를 들듯이 실생활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염불했다. 몸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러기 몇 년, 나는 특별히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한 것도 아니지만 몸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정말 다른 아이처럼 건강해졌다. 일종의 종교적 체험이었다. 그 이후 나는 더 불교를 믿게 되었다. 되돌아보면 불교는 나에게 건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유'라는 것을 준 것 같고 나 자신이 무한한 불성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지난 10년동안 학생회 지도교사로 활동하면서 자라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바로 너 자신이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부처가 바로 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건강 찾고 삶의 여유 갖게 돼

불교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때다. 어머니가 학생회 수련회에 가 보라고 권유해 처음으로 절에 가서 잠을 잤다. 그때의 기분을 말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옛날에 살던 집에 온 느낌이라고나 할까? 절 생활이 그냥 편안하게만 느껴졌다. 수련대회를 다녀온 후 나는 불교학생회에 꾸준히 나갔다. 어머니도 내가 매주 일요일 절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학생회 활동을 통해 나는 참

필수 요소다. 또한 혈액과 림프를 구성하는 주요성분이며 관절에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60~85% 정도. 이 가운데 1~2%만 빠져나가도 심한 갈증과 고통을 느끼게 되고 5%가 빠

2003 '세계 물의 해'

"물은 만물의 근원"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해(Inter-national Year of Fresh Water)'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

고 했다. 인체를 소우주로 보았을 때 탈레스의 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물은 인체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올 한해 물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한다. 물은 소화, 흡수, 순환 배설 등 신진대사를 담당하고 있어 산소와 함께 인체에 없어서는 안될

신진대사 담당 필수 요소

몸에 12% 부족시 치명적

저나가면 혼수상태, 12%를 잃으면 죽게된다. 물은 이같이 인간의 몸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기에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한달이상 생존할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일주일도 못 견디고 죽고 마는 것이다.

몸에 12% 부족시 치명적

'제6회 전국 천태 학생회 동계수련법회'

한파 속 정진 더 자라는 불심

연꽃잎을 연상시켜 연화지라고 불리는 소백산 연화봉에 위치한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신비스런 산세와 관음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 새해 벽두부터 선재동자들이 관세음보살을 호명하며 추위를 녹이고 있었다.

영하 15도, 최감온도 20도의 한파가 전국을 강타한 4일, 천태종 산하 전국 24개 사찰 중교동부 학생회원 297

명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관성당 5층 법당에서 동계수련법회가 열렸다.

졸업법회 이어 청년회 입회

부처님 믿음 변치 않겠다 서원

이번 수련법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둘째날 진행된 졸업법회. 어린이회와 중고등부학생회를 졸업한 법우들이 청년회에 가입해 신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적은 것이 염연한 현실, 그래서 졸업법회와 함께 천태종 청년회인 '청화' 가입행사를 수련법회의 프로그램에 접목시켰다. 전국에서 모인 40여명의 졸업생들은 후배들의 뜨거운 박수와 '청화' 천태종 청년회

회원들의 축하속에 부처님 믿는 마음이 변치 않겠다고 부처님전에 서원했다.

김해 해성사 학생회 김성국(김해건설공고 3년)군은 "이번 수련법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 그동안 법우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머리에 스쳐지나간다"며 "비록 졸업은 하지만 내년에 학생회 지도교사로 다시 수련법회를 참석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졸업법회에서 고대

월 스님은 "천태의 미래인 선재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의 심성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니 환희심이 절로 난다"며 "대학 진학, 사회진출 등으로 새로운 세계에 나아가더라도 내 자신이 불성을 가진 부처라는 사실을 잊지말고 열심히 신생활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수련법회는 이른 새벽 기상과 함께 예불, 관음기도, 적멸궁 참배 등 빼듯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구인사 조실 도용스님은 5



◇지난 4-6일 천태종 산하 전국 24개 사찰 중교동부 학생회 회원 3백여 명은 구인사 관성당 5층 법당에서 제6회 전국 천태 학생회 동계수련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졸업법회 모습.

일 오후 선재동자들의 방문을 받고 "공부 열심히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고 당부했다. 졸업법회 이전에 펼쳐진 장기자랑 시간에서는 대구 대상사, 부산 삼광사 학생회 등의 법우들이 그동안 준비한 갈갈이 삼형제, 패션 쇼를 펼치며 자신의 끼를 발산했다. 천태종 어린이회·학생회 지도법사 승모스

님은 "이쁘게 커가는 선재동자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 비록 자식을 두지 않은 출가자지만 부모의 마음을 느낄수 있을 것 같다"며 "특히 어린이회 출신이 학생회 지도교사가 되어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을 볼때면 불교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nia.com

피라미타, 문화재 지도자 연수

17일 까지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

피라미타청소년협의회(총재 도영)는 6일~17일까지 11일간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전국 초중등 교사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학년도 초·중등교원 전통문화재 지도자 양성과정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계승할수 있도록 이끌어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직무연수는 문화재청 이준근 문화재기획과장의 '문화재 정책', 숙명여대 정병삼 교수의 '전통문화재종론', 동대사대부중 우인보 교법사의 '한국의 탑', 목포대 김지민 교수의 '유교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강좌와 전통사찰인 봉은사 답사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피라미타는 3-5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분회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수련회를 봉행했다.



◇초 중등 교사들이 전통문화재 지도자 양성 과정 직무연수를 받고 있다.

동대부중 3대 종교체험학습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교장 박장옥)는 구랍 13, 16, 17일 3일간 3대 종교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3학년 재학생 28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종교에 대한 균형있는 지식을 습득케하고 건전한 종교관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된것. 참여학생들은 13일 학교 인근 성북교회, 16일 장안동 성당, 17일 강남 봉은사를 차례로 방문해 예배, 미사, 법회를 봉행하며 3대종교를 체험했다.

명성여중 소쩍새 마을 방문

명성여자중학교(교장 박명순)는 구랍 30일 장애인 복지시설인 원주 소쩍새마을(원장 현자)을 방문, 그동안 학교에서 모은 헌옷 20박스, 라면 등 생필품 5박스와 현금 13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1학년 3반 6명, 2학년 2반 30명, 졸업생 2명 등 총 39명과 한숙경, 정숙진 선생님은 6개조로 나누어 방 청소, 빨래, 말뱃퇴기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도 펼쳤고 원생들과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열어 흥겨운 한때를 보냈다.

명작 비디오 파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001년 스튜디오 지브리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짜증 잘내고, 청얼거리기 좋아하는 10세 소녀 치히로는 부모와 함께 이사가던 중 길을 잘못들어 이상한 터널을 지나가게 된다. 폐허가 된 놀이공원, 불길한 기운을 느낀 치히로는 돌아가자고 부모를 조르지만 음식점을 발견한 부모는 치히로의 청얼거림을 무시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혼자 돌아가겠다고 나선 치히로가 음식점에 돌아왔을 땐 돼지로 변해버린 부모가 있었을 뿐. 당황하는 치히로에게 낯선 소년 하쿠는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경고한다. 부모와 함께 나가려다 나갈 기회

를 잃고 이상한 세계에 남겨진 치히로는 온천장 주인 유바바에게 '치히로'라는 이름을 빼앗기고 '센'으로 불리지만 온천장에서 일하게 된다. 여기서 이름을 빼앗긴 사람들은 자아를 잃고 무명 속에서 헤매는 중생과도 같다. 이름을 빼앗긴다는 것은 타인이 날 인식하는 코드를 빼앗긴 것이다. 부처님은 <연기경>에서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의 이름과 물질은 '색(色)'이라 하고 이를 인식하는 것이 연기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신다. '치히로'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센'이라는 코드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강지연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바른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